

2026년 도 제 18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26년 9월 22일(화)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신 현 송 의 장(총재)
장 용 성 위 원
황 건 일 위 원
김 종 화 위 원
이 수 형 위 원
김 진 일 위 원
권 민 수 위 원(부총재)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김 언 성	감사	박 종 우	부총재보
	장 정 수	부총재보	김 제 현	부총재보
	이 동 렬	조사국장	임 광 규	금융안정국장
	최 창 호	통화정책국장	최 영 주	금융시장국장
	윤 경 수	국제국장	정 희 섭	외자운용원장
	백 무 열	법규제도실장	나 승 호	경제연구원 부원장
	조 용 범	금융통화위원회실장	권 도 근	의사팀장
	조 성 민	안정총괄팀장		

6. 회의경과

가. 보고안건

<보고 제65호 - 금융안정 상황점검>

(1) 금융안정국장이 보고 제65호 - 「금융안정 상황점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보고내용 : 별첨)

(2) 위원 토의내용

이어서 관련부서는 9월 10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우선 다수 위원들은 당행의 연속 기준금리 인상 배경에는 물가상승 우려뿐 아니라 금융불균형 누증에 대한 대응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하고, 금융취약성지수의 흐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아울러 명목GDP 성장에 따른 가계부채 비율 하락이 가계부채 상황이 안정되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꾸준한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외 커뮤니케이션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들은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등 대외요인에 의한 영향이 중요해지는 시기인 만큼, 충격 발생시 파급 경로나 관련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정책대출, 코로나19 당시 대출을 포함한 정부지원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자영업자 부실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해줄 것을 제안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들은 최근 시장 변동성, 비은행권의 수익성 변화, 환율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함에 있어 기술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련부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하는 한편 특히 기준금리 인상 이후 지표로 나타나는 최근의 움직임을 업데이트하여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 내용이 과도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대외 메시지 전달에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설명하였음.

(3) 심의결과

설명후 접수

(별첨)

「금융안정 상황점검」 관련 보고내용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을 기반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

다만 이번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4가지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8월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가격 상승폭 축소에도 여전히 가격상승 기대가 지속되는 등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추세적 안정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압력도 다시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금융취약성지수 FVI가 금년 2/4분기까지 오름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또한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특히 취약부문의 부실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의 장기 시장금리 상승, 중동사태 등 대외요인에 영향받아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잠재해 있음

이 같은 상황 하에서는 비은행 등 금융기관의 유동성 관리 부담이 증대될 우려도 있음

종합해서 보면 금융불균형 축적 우려와 금융불안 잠재요인이 모두 있는 만큼,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은 상호보완적으로 조화롭게 운용하되, 취약부문의 어려움을 미시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정·금융정책과의 정책공조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정부도 8월말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시장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